

한정숙, 『시베리아 유형의 역사: 격리 형벌, 계몽, 자유』, 민음사, 2017.

이 경 완*

한정숙 교수의 『시베리아 유형의 역사: 격리 형벌, 계몽, 자유』(민음사, 2017)는 17~19세기 말 러시아 제국에서 추진되었던 시베리아 유형 제도와 그 제도가 러시아 사회에 미친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균형잡힌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충분한 역사서이다. 동시에 그 역사적인 현상에 관한 문화예술향을 소개하면서 문학작품과 민요를 시적인 언어로 탁월하게 번역하고 비평까지 한 점에서, 더불어 저자의 시베리아 유형지 기행문이 부록으로 포함된 점에서 이 책은 탁월한 문화예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유형의 역사와, 이 제도가 제정 러시아에서 수행한 중차대한 기능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에 관한 문화예세에 대한 시적이고 감성적인 감흥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아놓은 것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장 별로 살펴보면, 제1장 “‘식민지’ 시베리아”에서는 16세기 말에 시작된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 개발 정책의 초기 단계가 소개된다. 저자에 따르면, 16~17세기 시베리아는 유럽부 러시아 주민들과 유럽인들을 위한 값비싼 모피 공급지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18세기부터는 금, 은, 구리 등 광물자원 공급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제 정부는 시베리아의 자연환경과 토착민족들의 사회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수탈하고 무력으로 식민화를 추진함으로써 토착민족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말았다. 다만 19세기 전반기에 스페란스키(Mikhail Speransky, 1772~1839)가 행정개혁

*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원

(Lee, Kyong Wan, Researcher at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llym University).

을 통해 시베리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 것처럼 시베리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러시아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37-39쪽).

제2장 “시베리아에 유배되다”에서는 동서양의 주요 유형 제도들과 시베리아 유형제도가 갖는 보편성과 차별성이 서술된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중국, 조선, 근대 서구 열강들의 다양한 유형 제도들을 소개하고, 18~19세기 초 표트르 대제 이래 러시아 전제 정부가 추진한 시베리아 유형 제도의 특성을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시기의 유형 제도는 유형수들의 교화와 갱생보다는 징벌과 격리, 그리고 유럽부 러시아를 위한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식민화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64-72쪽). 특히 18세기 후반 농노제가 강화되면서 지주들도 자신들의 농노를 징벌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시베리아 유형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농노제와 시베리아 유형 제도는 제정 러시아를 뒷받침하는 양 축이 되었다.

제3장 “시베리아 유형의 제도적 변화와 다양한 형태”에서는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형 정책의 확대 과정과 이 제도에 대한 서구와 러시아 연구자들의 다양한 평가가 비교되고, 저자의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저자의 평가는 한 마디로 19세기에 시베리아는 “물질은 퍼 담고 인간은 내다버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다(18쪽).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20세기 초 시베리아에 유배된 정치범들은 양적으로는 전체 유형수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시베리아 유형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집단 기억을 구성”하였다. 당시 일반 범죄자들은 식민과 격리를 위해서 유배된 반면, 정치범은 주로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무력화를 위해서 유배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관료들과 저널리스트들은 시베리아를 러시아 사회의 쓰레기의 저인망, 러시아를 위한 환기통으로 지칭하였다(91-92쪽). 다만 시베리아 개발과 식민화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라는 이전의 목적은 변함없이 작동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제정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형 제도를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로의 유형 제도와 비교하면서 시베리아 유형 제도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평가를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서구 열강들의 식민화 정책과 시베리아 유형 제도는 모두 식민과 징벌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근대 유형 제도인 데 반해, 시베리아 유형 제도는 “유난히 오래 계속되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99쪽). 그리고 농노제와 연계된 시베리아 유형 제도는 징벌과 격리는 물론 시베리아 식민화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제 정부 역시 이를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이 유형 제도는 18세기 후반에 잠시 폐지된 뒤에 바로 재개되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여기에서 저자는 특히 당시 계몽된 지식인들의 시베리아 유형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 가운데 인민주의자 니콜라이 야드린체프(1842~1894)의 강도 높은 비판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야드린체프의 비판에 따르면, 시베리아 유형 때문에 “시베리아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는 것이다(115쪽).

제4장 “시베리아의 정치적 유형수들”에서는 17~21세기 초 제정 러시아 사회에 깊이 각인된 유명한 유형수들이 개별적으로 소개된다. 저자는 먼저 정교 교회의 대분열 이후 핍박을 받은 구신도, 우크라이나 코자크 지도자들,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가 차르의 총애를 잃은 러시아 대귀족들 가운데 유명한 유형수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한다.

개인적으로 러시아 정교의 분열 이후 차르와 정교 교회에 반대한 구신도들의 지도자 아바쿰 대주교(1621~1682)가 혹독한 유형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것과, 저자도 잠깐 언급하지만 다른 구신도들 역시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근면과 성실로 부를 일군”(109쪽) 것이 인상적이다. 돌고루코프 공작의 며느리인 나탈리야 공작 부인의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역시 깊은 감동을 준다.¹⁾

그 뒤를 이어 저자는 18~19세기 러시아 정치범들과 폴란드의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운 폴란드 독립주의자들의 시베리아 유배 과정, 유형 생활과 이후의 삶, 그들이 러시아 사회는 물론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일부 유형수들의 탈출 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유명한 유형수들은 18세기 후반 당시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르 라디시체프(1749~1802), 1825년 제정 러시아의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봉기한 데카브리스트들, 페트라셴스키 사건으로 시베리아 유형수가 된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1821~1881), 서구의 무정부주의 운동을 주도한 미하일

1) 그녀는 원래 대귀족이자 대부호인 보리스 세레메테프 백작의 딸로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돌고루코프 공작의 큰아들 이반 돌고루코프(1708~1739)의 약혼녀였다. 그런데 돌고루코프 공작의 실종과 그의 가족의 시베리아 유형이 결정되자 그녀는 전제 정부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반과 결혼하고 남편의 비참한 유형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하고, 두 아들과 함께 수도로 돌아온 뒤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였다. 이후 그녀는 데카브리스트들의 아내들에게 정신적인 귀감이 되었다.

바쿠닌(1814~1876), 러시아 인민주의의 선봉장 니콜라이 체르니셴스키(1828~1889), 레나 강의 이름을 따른 필명 ‘레닌’으로 더 많이 알려진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 레닌의 혁명 동지로서 투철한 볼셰비키 사상가인 레프 트로츠키(1879~1940), 볼셰비키 혁명 1세대를 대거 숙청하면서 일당 독재체제를 형성한 이오시프 스탈린(1878~1953), 그리고 폴란드 유형수 미구르스키 등이다.

개인적으로 이 계몽된 정치 유형수들이 가혹한 유형 생활에서도 확고하고 투철한 소신과 역사적인 책임의식으로 자기희생적인 활동을 계속한 것은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나탈리야 공작부인의 뒤를 이어 데카브리스트들, 바쿠닌,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미구르스키의 아내들이 보여준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 역시 큰 감동을 준다. 저자는 레닌, 트로츠키, 미구르스키의 아내는 남편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230쪽), 바쿠닌과 트로츠키가 그들을 위해 시베리아에 온 아내들을 홀로 남겨두고 탈주해서 영웅적인 혁명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평가를 내린다. 개인적으로도 그 곳에 홀로 남아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 아내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탈주하는 정치범들을 도와준 다른 숨은 조력자들의 영웅성도 좀더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스탈린의 혁명 및 유형 생활과 소비에트 체제 성립 이후 트로츠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설명에서도 개인적으로 비애감을 느끼게 된다. 저자에 따르면, 볼셰비키 혁명의 선봉장이었던 레닌은 레나 강 주변에서 아내와 장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호화로운’ 유형 생활을 하였고, 이 시기에 그가 저술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볼셰비키 혁명의 역사적인 필연성을 입증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레닌의 동지인 트로츠키 역시 다소 편안한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였으나 불같은 성격을 지닌 그는, 바쿠닌처럼 아내와 두 딸을 유형지에 남겨두고 탈출하여 이들과 완전히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트로츠키와 함께 시베리아 수용소에 유배되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체제에서의 일당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히려 시베리아 유형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트로츠키를 비롯한 혁명 1세대를 숙청하거나 추방해 버린다. 시베리아 유형 생활의 고난을 이겨낸 혁명가가 소비에트 혁명에 성공한 뒤 그 유형 제도에 의거하여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내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스탈린의 배신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일침한다. “유형이 체제를 공고

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배우지 못했다”(177쪽). 개인적으로 필자는 스탈린의 배신이 순전히 그의 권력욕과 과대망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진보를 신뢰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소비에트 체제의 허구성과 폭력성에 의해 비롯된 현상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어쩌면 두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유형수들의 삶과 문화”에서는 조지 케닌의 시베리아 유형 제도에 대한 비판이 서술되고, 시베리아 유형수들의 강요된 공동생활의 이모저모와 자유를 얻은 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일부 유형수들의 탈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먼저,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 여러 정치 유형수들의 기록, 외부 관찰자의 기록, 이들에 대한 그림, 시베리아에 회자되는 이들의 기구하고 비극적인 삶에 대한 민요 등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특히 시와 민요를 탁월한 시적인 문체로 번역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비평과 서정적인 감상도 곁들인다.

그리고 저자는 진흙탕 같이 더럽고 악랄한 시베리아 유형 제도에서 예기치 않게 진주와 같은 소중한 유산들이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은 부분적인 측면일 뿐임을 지적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유형 제도의 진주 같은 결과들로는 시베리아 유형수들에 대한 주민들의 후한 적선의 문화, 데카브리스트들과 그 아내들의 인내와 헌신적인 섬김과 계몽 활동, 유형수들이 이송 과정과 수용소 생활에서 형성하는 공동체 문화, 도스토옙스키가 데카브리스트 아내들이 준 신약성서를 읽고 유형수들과 생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생산적인 노동,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것, 레닌이 유배지에서 필생의 역작을 저술하고 미래를 위한 영적, 지적, 감정적인 양분을 섭취한 것 등이 있다(197-237쪽).

다만 저자는 인민주의자인 야드린체프가 유형수들의 수용소 생활을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그의 편향적인 민중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균형잡힌 태도를 취한다(212-222쪽). 그리고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시베리아 유형 생활이 반영된 『죽음의 집의 기록』,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비교하면서 그에게 시베리아는 지옥이 아니라 연옥과 같았으나 그의 정신적 전환은 복잡하고 모순적이기도 하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한다(237-244쪽). 필자의 시각에서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의 기독교 세계관의 양가성과 복잡성을 깊이 파악한 것이다.²⁾

끝으로 맺음말에서 저자는 시베리아 유형 제도의 오작동이 야기한 전반적인 폐해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반적인 교훈을 간결하고도 인상적인 표현으로 전한다. “한 사회가 자신의 모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모순을 안고 자기 안에서 정직하게 대결해야 한다”(266-267쪽). 저자의 이 인상적인 결론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통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내용 소개와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는 이 책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깊은 통찰을 토대로 얻은 개인적인 상념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이 책에서 저자가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19세기 전반기 스페란스키의 시베리아 행정개혁의 시도, 야드린체프의 시베리아 지역주의 담론, “근면과 성실로 부를 일군” 구신도들의 생활방식과 공동체 문화, 노브고로드 공국의 민주주의 문화 등에서 보다 이상적인 시베리아 개발 모델들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저자는 마치 이스터 에그(Easter egg)처럼 그런 이상적인 시베리아 개발 모델의 단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필자는 17세기 정교의 분열 이후 구신도들이 당한 시베리아 유형 of 고통은 계몽된 정치범들의 고통 못지않게 컸고, 그래서 그들의 순교자적인 삶은 러시아 사회에 큰 정신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경제 활동과 경건하고 건실한 생활 태도 역시 전 사회적으로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구신도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외에 단순무식한 광신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었다. 단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극단적인 고통을 체험하기 위하여 기꺼이

- 2) 다만 필자의 시각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뿐 아니라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고통의 영적, 인식적인 효과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양가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첫 작품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강요된 수용소 생활이 지옥과 같았다고 분명하게 평가할 뿐 아니라, 『죄와 벌』에서도 라스콜리니코프 대신 형벌을 받겠다고 거짓자백한 구신도 니콜라이에 대해서 거의 무지몽매한 광신도로 평가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자신은 무고하지만 시베리아에서의 고통을 통하여 갱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이반과 알료샤가 제안하는 탈출을 받아들인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성적으로는 자유의 박탈과 부당한 고통에 반대하는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신앙적으로는 고통의 영적, 지적, 정서적인 각성효과를 맹신하는 금욕주의적인 기독교 문화를 수용하는 자기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타인의 형벌을 대신 치르고자 한 구교도 분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신도의 투철한 의지와 건실한 공동체 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대안적인 사회경제 모델의 구성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자치 문화가 발달한 노브고로드 공국이 13~14세기에 중앙집권적인 모스크바 공국에 의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노브고로드인들에 의한 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자치권이 보다 인정되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된다. 물론 노브고로드 공국 역시 시베리아에서 들어오는 모피와 광물자원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공국처럼 수탈과 폭력적인 식민화 정책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공국 내에 형성된 민주주의 문화에 따라서 그들은 시베리아의 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저자 역시 노브고로드 공국의 자치 문화에 대한 가벼운 언급을 통하여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유형 제도와 오늘날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식민주의 혹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집단적 무의식을 고려해볼 때,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성과 집단적 무의식,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종교문화와 생활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제정 러시아에서 300년 이상 뿌리를 내려온 시베리아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식이 오늘날에도 러시아 사회에 강하게 남아있음을 러시아 정부의 시베리아 정책에서 확인하게 된다. 19세기에 전제 정부가 시베리아 행정청을 신설하여 시베리아 지역을 통치한 것과 유사하게, 현재의 러시아 정부 역시 낙후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대통령전권대표를 파견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극동 지역 주민은 물론 연구자, 기업인, 관료들도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중앙정부와 유럽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극동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유형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눈엣가시가 되는 특정 대상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자 하는 “희생양 만들기”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시베리아 주민들의 자치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역시, 제정 러시아 시대에 형성된 식민주의적 사고와 인간 사회

의 보편적인 희생양 만들기 메커니즘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극복을 통해서만 뿌리를 내리고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책이 필자에게 제공해 준 풍부한 지식과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에게 이런 상념을 불러일으켜 준 저자에게 더욱 깊은 감사과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КСИ